

SK지오센트릭, 울산에 1.6만t 규모 2차 최대 열분해 공장 건립

플라스틱 에너지사와 HOA 체결 열분해 공장·사업 추진 등 합의

리사이클 클러스터 부지에 조성 열분해유 후처리 공장도 추진 나경수 사장 “순환경제 구축 선도”

SK지오센트릭이 영국의 플라스틱 열분해 전문 기업 ‘플라스틱 에너지(Plastic Energy)’와 함께 아시아 최대 규모 열분해 공장 설립에 나선다.

SK지오센트릭은 16일 서울 광진구 워커히 호텔에서 영국의 플라스틱 에너지와 울산 리사이클 클러스터(플라스틱 종합 재활용 단지) 부지 내 열분해 공장 설립을 위한 주요조건 합의서(H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엔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 카를로스 몬레알(Carlos Monreal) 플라스틱 에너지 사장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양사는 ▲플라스틱 에너지 기술을 도입하여 울산 열분해 공장 건립 ▲수도권 지역 열분해 공동 사업 추진 ▲아시아 지역 내 열분해 사업 확대에 대해 합의했다.

SK지오센트릭은 2025년 하반기까지 울산 리사이클 클러스터 부지 안에 약 1만3000㎡(4000평) 면적을 활용하여 아



16일 서울 워커히에서 진행된 HOA 체결식에서 (왼쪽부터) 카를로스 몬레알 플라스틱 에너지 사장과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지오센트릭

시아 최대인 폐플라스틱 처리기준 연 6만 6000톤 규모 열분해 공장 건립을 추진한다.

또한, SK지오센트릭은 울산 부지 내에 자체 보유 기술로 연 10만톤 규모의 열분해유 후처리 공장도 함께 조성한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정에서 생산된 열분해유를 후처리 공정에 투입해 한층 높은 품질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과정을 거치면 열분해유를 다양한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다.

2012년 설립된 플라스틱 에너지는 현재 스페인 세비아 등에서 2개의 열분해 공장을 수년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열분해 기술 관

련 다양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글로벌 메이저 석유화학사들과 협력해 공장 5개 추가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열분해유는 폐플라스틱과 버려진 비닐 등을 고온으로 가열해 만든 원유다. 석유화학 공정에 원유 대신 투입해 새로운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순환 경제 구축의 핵심이다.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원유를 다시 뽑아내는 의미로 도시유전 기술로도 불린다.

재활용 플라스틱 의무화 정책 등 선진국 규제 강화로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수요는 급증할 전망이다.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열분해유 화학적 재활

용 시장은 2020년 70만톤 규모에서 2030년 330만톤 규모로 연평균 17%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

SK지오센트릭은 16일과 17일 양일간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열리는 ‘2022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지 포럼’에 나경수 사장과 플라스틱 에너지 카를로스 몬레알 사장이 함께 참석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친환경 패키지 포럼은 기업, 학계, 협회, 기관 등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전략 등 지속가능 성장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자리로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는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활동’을 주제로 열렸다.

SK지오센트릭은 순환경제를 위한 미래혁신기술세션을 주관했으며, 울산 리사이클 클러스터 조성에 협업하는 글로벌 파트너와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 캐나다 기업 루프 인더스트리(Loop Industries), 미국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Purecycle Technologies) 관계자가 화상으로 참석해 플라스틱 선진 재활용 기술을 소개했으며, 영국 플라스틱 에너지에서도 자사의 선진 열분해 기술을 설명했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플라스틱 에너지와 열분해 분야 협력을 통해 울산 리사이클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며 “여러 파트너사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각, 매립되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순환경제 구축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를로스 몬레알 플라스틱 에너지 사장은 “한국은 수명이 다한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위한 중요한 시장이다”라며 “SK지오센트릭은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해 한 곳에 다양한 기술을 배치한다는 독특한 비전을 갖고 있으며, 플라스틱 에너지가 이 비전을 실현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박정원 회장 “원전 생태계 활성화 위해 적극 나서야”

(두산그룹)

국내외 주요 원전 프로젝트 앞두고 두산에너지빌리티 원자력사업 점검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국내외 주요 원전 프로젝트를 앞두고 사업현장을 찾았다.

16일 두산그룹에 따르면 박 회장은 전남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지빌리티 본사를 방문해 원자력·풍력·수소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박 회장은 국내외 주요 원전 프로젝트를 앞두고 원자력 공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으며, 100MW 규모 제주한림해상풍력 주기기 제작현장과 수소액화플랜트 건설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원자력 공장을 가장 먼저 찾은 박 회장은 최근 국내외 원전 시장 움직임을 놓고 정연인 사장 등 경영진에게 “국내외 주요 원전 프로젝트 진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언제라도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16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지빌리티 원자력 공장 내 원자로 헤드 앞에서 원전 모형을 보며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히 재개하기 위해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 한국과 폴란드는 폴란드 폰트누프 지역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의향서(LOI)와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국내 원전업체들의 해외 수출길을 다시 한번 열었다.

또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협약을 맺고 원자로 모듈 시제품을 테스트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 회장은 “해외 곳곳에서 한국의 원자력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자부심을 갖고 좋은 제품으로 고객의 눈높이를 뛰어 넘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자”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역량을 보유한 협력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국내 원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행에 옮기자”고 말했다.

박 회장은 최근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작업장에서 최첨단 소재와 제조 기술을 점검하고, 이어 제주한림해상풍력에 공급할 5.5MW급 해상풍력발전기 제작 현장과 내년 4월 국내 최초로 준공 예정인 수소액화플랜트 건설현장을 둘러봤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올해 4월 미국 뉴스케일파워와 SMR 제작 착수를 위한 협약을 맺고 원자로 모듈 시제품을 생산해 테스트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미국 뉴스케일과 이르면 연내 SMR용 주단 소재 제작을 시작하고 2023년

박 회장은 “미래를 위해 준비한 회사의 차세대 에너지 사업들이 국가 에너지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자”며 “안전은 회사와 임직원 모두의 기본적 책무이니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작업에 임해 달라”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양성운 기자 ysw@

온세미 벤츠 비전 EQXX에 SIC 기술 공급키로

온세미가 메르세데스-벤츠에 실리콘 카바이드(SiC) 기술을 공급한다.

온세미는 벤츠가 비전 EQXX에 자사 기술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비전 EQXX는 벤츠의 전동화 콘셉트카로, 0.17cd에 100km당 10kWh 미만 에너지를 소비하며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영국 실버스톤까지 1202km를 주행하는 기록을 세운바 있다.

비결은 트래션 배터리에 저장한 에너지 95%를 휠에 도달하게 하는 전기 시스템, 내연기관 차량보다 3배 이상 개선한 수차다.

온세미는 더 작은 공간에서 열 방출을 개선하고 전력 출력을 늘리며 모듈 무게와 비용을 줄이는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통합 모듈 및 개별 패키지 솔루션 등 엔드 투 엔드 공급 기능을 갖춘 유일한 대규모 SiC 솔루션 공급업체다.

온세미 파워 솔루션 그룹의 부사장 겸 총괄인 사이먼 키튼은 “확장된 레인지리를 제공하는 우수한 SiC 기술 외에도, 온세미는 SiC 솔루션에 대한 공급 보증, 생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규모, 지능형 전력 및 센싱 솔루션에 대한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SiC 솔루션의 고효율로 인해 고객은 배터리 비용과 차량 레인지 간 트레이드오프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전 EQXX는 오는 18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2022 일렉트로닉스에서 전시된다.

KB국민은행, ‘IT서비스혁신대상’ 과기부 장관상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 주도 인정

KB국민은행이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IT서비스 혁신대상’은 국내 IT서비스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대상으로 한국IT서비스 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관해 시상한다.

KB국민은행이 수상한 ‘IT서비스 기술혁신’ 부문은 국내 공공 및 산업 분야에서 IT서비스 개발, 사업활성화, 해외 진출 등을 통해 국내 IT서비스 기술 및

산업발전에 공헌한 단체에게 수여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금융 인공지능(AI)센터를 신설하고 금융 IT서비스 혁신을 위해 금융 분야 AI기술을 내재화했다.

▲금융 분야 광학문자인식엔진(KB AI-OCR) 개발 ▲금융 분야 언어엔진

(KB-STA) 개발 및 AI윤리기준 선언 ▲AI기술 기반 개인화된 금융서비스(AI금융비서) 출시 등 IT기술을 활용해 금융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 점을 인정 받았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AI기술을 활용해 금융의 가치 혁신을 이루고 금융산업 분야 AI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김재용 기자 juk@